

# 문화 돋보기

## Vol. 130

(2022-130) 2022. 11. 28.

# 예술인패스 활용 확대 방안 연구

- I. 서론
- II. 예술인패스 제도 현황 분석
- III. 예술인패스 제도 만족도 분석 및 쟁점 도출
- IV. 예술인패스 제도의 개선방안
- V. 참고문헌

### 이 정 희 작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연구원

---

# 예술인패스 활용 확대 방안 연구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4년 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이관된 예술인패스 제도는 예술인들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의 공연 및 전시 그리고 생활 속 문화공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예술인만을 위한 할인카드 발급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의 예술인패스 제도는 국공립 기관을 중심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예술인들이 제도의 이익을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술인패스의 활용률이 매우 낮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유료 공연 및 전시를 할인해주는 국·공립 참여기관은 195개이고, 무료로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국·공립 참여기관이 319곳이다. 민간 시설의 경우 생활 속 할인 공간이 전체 156곳 중 80곳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의 순이다.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위한 외부적 자극을 충분히 얻음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예술 창작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예술인패스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조사하고 내외부의 환경분석을 통해 향후 실효성이 있는 예술인 전용 할인 제도로써 기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예술인패스의 현황이나 성과, 사업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이번 기회에 예술인패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예술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할인제도인 예술인패스가 탄생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예술인패스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이며, 대상적 범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패스이다. 본 연구에서 가리키는 예술인패스의

대상자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문화예술교육사,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 박물관/미술관 관장 및 설립자이다.

연구를 위하여 문헌분석,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예술인패스 발급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II 예술인패스 제도 현황 분석

### 1. 예술인패스 제도의 내용 및 전개

#### (1) 예술인패스 제도의 개요 및 전개

예술인패스는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와 실생활 속에서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4년 3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예술인패스가 처음 도입되었던 2014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문학, 시각예술, 공연), 예술 장르별 대표 단체(법인) 소속 정회원, 미술관·박물관 관장 또는 설립자,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예술인패스 카드를 발급해주었다.



그림 1 | 2014년 도입 당시 예술인패스 카드 디자인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2022.11.09. 접속)

예술인패스 제도의 도입 취지는 순수예술인(문학, 시각예술, 공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제도를 도입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창작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에 있었다. 예술인패스를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의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2014년 10월부터 시범 운영되다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발급조건 때문에 2016년 예술인패스 제도의 운영 주체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별도로 예술인패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된 후에는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는 페이지 하단에 예술인패스 발급에 동의하는 지를 클릭하도록 되어 있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별다른 인식 없이 예술인패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술인 스스로가 예술인패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발급자의 수에 비해 실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예술인의 수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2018년부터는 원로 예술인이나 장애예술인 외에는 실물 카드가 아닌 모바일 카드로 전환되어 발급되고 있다.



그림 2 | 2022년 예술인패스 카드 디자인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2022.11.09. 접속)

## (2) 예술인패스 제도의 현황

2022년 기준,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은 사람은 예술활동증명인(이하 예증인) 111,501명, 비예술활동증명인(문화예술교육사, 박물관·미술관 관장 등, 이하 비예증인) 16,924명으로 총 128,425명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예증인과 비예증인 모두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분야별로는 예증인의 경우 음악 분야가 가장 많고, 비예증인은 시각 예술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1 | 예증인 분야별 예술인패스 발급 현황

분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문학	423	192	988	1,041	1,033	885	2,251	2,198	1,882	10,893
미술	1,155	923	2,807	2,197	2,206	1,627	4,697	5,142	2,940	23,694
사진	130	74	214	191	236	209	500	686	291	2,531
건축	0	1	1	5	12	5	8	18	7	57
음악	274	286	2,709	2,283	1,933	2,194	7,298	5,788	4,229	26,994

분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악	123	108	613	576	487	452	1,495	930	695	5,479
무용	133	112	613	383	374	343	1,005	947	471	4,381
연극	609	564	2,888	2,138	1,519	1,717	3,009	2,081	1,066	15,591
영화	130	257	1,421	920	656	670	1,227	997	519	6,797
연예	40	68	724	503	438	529	1,322	922	691	5,237
만화	38	36	300	256	295	286	436	301	235	2,183
기타	739	341	3,513	1,321	516	286	543	326	79	7,664
총합	3,794	2,962	16,791	11,814	9,705	9,203	23,791	20,336	13,105	111,501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패스 발급현황(내부자료)

표 2 | 비예증인 분야별 예술인패스 발급 현황

분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문화예술	0	263	60	54	122	134	170	145	149	1,097
전통	17	598	93	78	85	92	179	89	52	1,283
음악	372	190	86	108	98	111	194	252	117	1,528
무용	0	160	39	48	52	65	96	63	35	558
연극	1,716	341	125	129	101	139	222	251	142	3,166
시각 예술	4,392	1,348	399	405	400	384	321	311	140	8,100
문학	830	302	14	15	0	2	0	0	5	1,168
기타	13	0	3	3	2	3	0	0	0	24
합계	7,340	3,202	819	840	860	930	1,182	1,111	640	16,924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패스 발급현황(내부자료)

예술인패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발급자인 128,425명 중 38.1%인 5만여 명 정도만 예술인패스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로 20·30대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발급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예증자와 비예증자 간 이용횟수의 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회 이상 경험자의 비율을 보면 예증자 36.2%이고 비예증자가 53.8%로 약 2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술인패스가 예술창작활동이나 문화예술 향유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공연·전시 관람을 통한 예술적인 영감이나 역량이 강화된다’에 가장 많이 체크하였고, 다음으로는 ‘예술인패스 소지자로서의 자긍심’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가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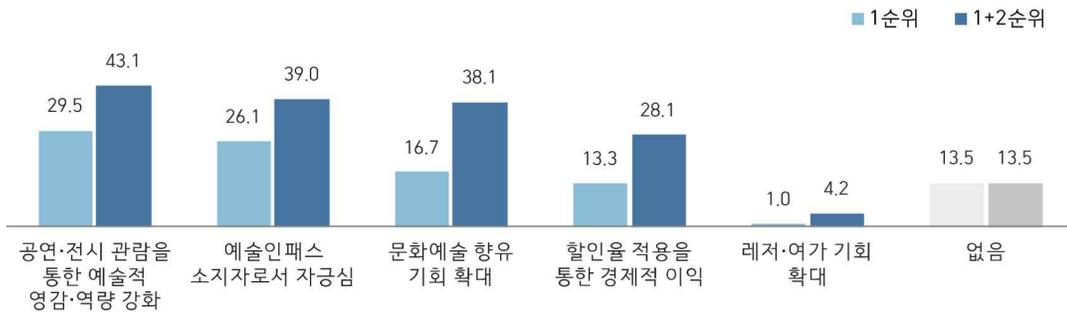


그림 3 | 예술인패스의 도움 내용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2). 「예술인패스사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 24쪽.

예술인패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혜택/서비스/다기능/다용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었으며, 실질적/실용적인 서비스의 제공, 모든 문화예술 분야/시설로의 확대(국·공립, 민간, 영화관 등)도 상위에 올라 예술인들이 예술인패스 제도의 혜택 확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 예술인패스 개선 사항 제안

내용	비율
다양한 혜택/서비스/다기능/다용도 필요	16.5
실질적/실용적인 서비스 제공 요망	9.6
모든 문화예술 분야/시설로 확대 요망(국·공립, 민간, 영화관 등)	7.4
할인율 확대	7.0
제휴 기관 확대 요망(온·오프라인 제휴처 등)	5.9
지역 및 분야 제한 없이 공평한 혜택/서비스/정보제공 필요	5.7
실물 카드 발급 확대 요망	5.7
발급 방법, 혜택, 사용처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5.0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2). 「예술인패스사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 47쪽.

※ 5.0% 이상 응답 내용만 발췌함

## 2. 예술인패스 유사사례 검토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복지카드, 서울시 청년수당 신한카드 S20,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공무원 연금공단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국군복지단 국군복지포털 등이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할인 제도의 국내 사례에는 클럽발코니, 인터파크 티켓의 TOPING, 롯데콘서트홀 멤버십 등이 있고,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의 MdA(La Maison des

Artistes), 독일의 BBK(Bundesverband Bildender Künstlerinnen und Künstler), 핀란드 AAF(Artists' Association of Finland), 호주의 NAVA(National Association for the Visual Arts) 등이 대표적이다.

표 4 | 특정 집단 대상 서비스 요약

	교직원 복지카드	서울시 청년수당 카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국군 복지포털
형태	신용카드	체크카드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발급대상 및 조건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b>구좌 개설 필수</b>	서울시 청년수당 받는 수혜자 <b>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 해당자</b>	경기도 청년노동자 <b>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b>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족 포함) <b>공무원연금 납부</b>	군인, 예비역 등 군 관련 직종(가족 포함) <b>군인연금 납부</b>
의무사용	전월 실적 및 횟수 제한 없음	전월 기준 실적 20만원 이상, 실적에 따른 혜택 제공	3개월마다 복지포인트 제공 (3달 300,000점)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연 내 필수 사용	기본점수, 가족점수 연 내 필수 사용
혜택	카드사 할인 혜택 기본 제공 및 한국 교직원공제회 고유 서비스 중복 할인	캐시백 서비스 (월 최소 5천원~3만원)	경기 청년몰에서 구매 가능	제휴플랫폼 내 상품들에 대한 할인 및 적립 서비스	시중가 대비 최소 10% 이상 할인된 상품 구매 가능
할인 및 적립 분야	주유, 학원, 마트, 통신, 교통, 전기 등	편의점, 독서/어학, 생활, 테마파크/영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행/레저, 문화생활, 생활서비스 등	여가활용, 육아교육, 건강관리, 생활서비스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족친화, 문화여가, 여행레저, 생활편의

출처: 이정희(2022). 「예술인패스 활용 확대 방안 연구」, 47-48쪽.

표 5 | 문화예술 분야 할인 서비스 요약

	클럽발코니	인터파크 티켓	롯데콘서트홀	MdA	BBK	AAF	NAVA
형태	멤버십						
발급대상 및 조건	누구나			연간 8천 유로 이상 시각예술인 소득자	독일 시각예술가 협회원	핀란드 시각분야 예술가	호주 시각분야 예술가
	<b>연회비 납부</b>			<b>€ 30 이상</b>	<b>€ 25</b>	<b>€ 40</b>	<b>\$90, \$298</b>
혜택	매거진 무료 배송, 기획공연 할인, 선예매	일부 공연 할인, 선예매, 예매 대기	롯데 회원 혜택 기본 제공, 예매 수수료 면제, 기획공연 할인, 선예매	박물관, 아트센터, 재단 유료전시 무료 또는 할인, 보험, 미술용품 등 할인	최신 정보 공유, 세금, 계약, 상담 등 국제시각예술 협회 ID 발급으로 전세계 박물관 및 전시관 무료입장	법률 자문, 전 세계 박물관 무료 또는 할인, 해외 수출시 ATA carnet 제공, 재할서비스	보험 안내, 저작권, 펀딩 등 가이드, 입장권 한정 판매, 미술관 및 박물관 할인, 미술용품 할인, 예술 잡지 구독 할인

출처: 이정희(2022). 「예술인패스 활용 확대 방안 연구」, 48쪽.

국내와 국외에서 예술인패스처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멤버십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혜택을 받는 집단에서 일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소정이라도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공제회처럼 구좌를 개설하는 방식을 통해 수혜자들에게도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연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을 차용하여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부분 공공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협회나 조직에서 이러한 서비스 제도를 구축하여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특기해볼 만한 점으로 꼽혔다. 예술인패스처럼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공공 영역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제도는 해외에서도 흔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런 지원제도가 있더라도 대체로 특정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만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예술인패스가 가지는 제도의 독창성과 고유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 | 할인 서비스의 대상 집단과 유무료 여부

		대상		
		직군 전체	특정 연령대	제한 없음
유무료	회비 납부	한국고직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국군복지단, MdA, BBK, AAF, NAVA		클럽발코니, 인터파크 티켓, 롯데콘서트홀
	납부 안함	예술인패스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출처: 이정희(2022). 「예술인패스 활용 확대 방안 연구」, 49쪽.

### III 예술인패스 제도 만족도 분석 및 쟁점 도출

#### 1. 예술인패스 제도의 만족도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패스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웹설문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약 한 달 여 간의 조사 기간 동안 총 377명이 응답하였다.

## (1) 예술인패스 이용 양상

예술인패스를 최초로 발급받은 이후 현재까지 예술인패스를 통해서 몇 번이나 할인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문화예술공간 할인’과 ‘생활 속 공간 할인’ 모두 ‘3회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 예술인패스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문화예술 공간 중 예술인패스를 통해 주로 이용하는 곳은 공연장(31.0%), 미술관(27.1%), 이용한 적 없다(18.7%)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 속 공간의 경우에는 75.7%가 ‘이용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했고, ‘카페(9.9%)’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음식점(4.1%)’, ‘서점(3.6%)’ 순이었다.

예술인패스 발급자들은 예술인패스 제휴 기관 및 할인 정보를 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획득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패스 온라인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는 32.9%,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는 26.0%, 스스로 검색하여 정보를 파악하는 경우는 21.2% 순으로 집계되었다.

예술인패스 제도가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술인패스 제도가 예술인으로서 자부심 고취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약간 도움이 되었다’의 비율이 42.8%, ‘약간 도움이 되지 않았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의 비율이 24.6%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예술인패스가 예술인으로서 자부심 고취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예술인패스 제도 만족도

예술인패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매우 만족 2.4%, 만족 14.9%, 보통 44.8%, 불만족 27.1%, 매우 불만족 10.9%의 응답을 보였다. 예술인패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은 ‘공연·전시 관람을 통해 예술적 영감 고취’, ‘예술활동에의 동기부여’, ‘예술활동에 필요한 정보 획득’, ‘예술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예술활동을 위한 소요 비용 감축’ 등 총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응답 항목에서 ‘별로 도움 되지 않음+전혀 도움 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매우 도움+약간 도움’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술인패스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예술적 영감 고취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매우 도움+약간 도움)이 4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술활동 동기부여가 42.5%, 예술활동을 위한 소요 비용 감축이 35.3%로 가장 낮았다.

### (3) 예술인패스 활용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

예술인패스 발급자들이 생각하는 예술인패스 제도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생활 속 서비스 제휴처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기관 제휴처 부족 19.9%, 할인 정보 및 혜택 홍보 부족 18.0%, 낮은 할인율 13.0%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향후 예술인패스에 추가된다면 예술활동에 도움이 될 문화예술서비스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세 가지는 ‘공연·전시·축제 등 할인 제휴처 확대(27.1%)’, ‘예술활동에 필요한 제품 구입 할인 제휴처 확대(24.9%)’, ‘문화예술계 제휴처의 할인율 확대(13.2%)’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E-book이나 OTT 등 온라인 문화예술 서비스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 작업 공간이나 전시장 대관료 할인 혜택도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집계되었다.

예술인패스 제휴 기관 및 할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가 가장 유용한지 묻는 질문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안내’로 응답한 비율이 5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예술인패스 전용 애플리케이션 제공’이 28.6%, ‘가맹점의 예술인패스 할인 여부 안내 문 부착’이 9.8%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 2. 예술인패스 제도의 주요 쟁점 도출

### (1) 제한적인 제휴처에서만 사용 가능한 예술인패스

예술인패스 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술인들의 예술인패스 사용률은 3회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예술인패스 제도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술인들이 예술인패스 제도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술인패스 제도에서 제공하는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설문조사와 예술인 FGI를 통해서 수렴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할인을 제공하는 공연·전시·행사 등 중에서는 흥미를 끄는 행사가 부족하다는 점과 예술인들이 진짜 가고 싶은 공연·전시 등은 정작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인패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예술인패스로 할인을 해주는 공연이나 전시들이 나의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아 할인을 해주더라도 별로 가고 싶지 않거나,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2) 다른 할인 제도보다 낮은 예술인패스 할인율

예술인들이 예술인패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낮은 할인율이었는데, 예술인들의 호기심을 이끄는 공간은 예술인패스의 제휴처가 아니거나 매우 낮은 할인율만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패스 제휴처의 경우 10~20%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술 분야 종사자인 경우에는 지인을 통해서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인패스의 할인 혜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예술인들은 향후 예술인패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할인율의 확대가 대폭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예술인들은 예술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공연·전시 등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할인의 폭이 일반 카드사나 통신사의 할인율보다 높아지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현재는 국·공립 공연이나 전시 시설 중에서도 자체 기획이 아닌 대관이면 예술인패스 할인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할인율을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더불어 예술인패스가 유용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예술 창작 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 (3) 일부 장르에만 편중된 혜택 제공

예술인패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예술인들의 장르를 살펴보면 주로 공연, 미술 분야가 많았다. 특히 문학, 건축, 만화 분야의 경우에는 3회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예술인패스 제도가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이 예술인패스의 주된 제휴처이다 보니 이 공간 만으로는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르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예술인패스를 통해 추가적인 예술 교육에 필요한 비용, 도서 및 영화 등 장르를 불문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의 할인 혜택 제공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연습실 대관료 지원, 장비 대여, 소품 및 의상 대여, 음원 사이트 이용 할인 등 예술 활동 중에 소요되는 주요 비용에 추가적인 할인 혜택 역시 주어지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공공에 치중되어 있는 예술인패스 할인 혜택

현재와 같이 국·공립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에서는 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새롭고 도전적인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

실이다. 최근 미디어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예술 생태계를 주제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들이 민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공연이나 전시의 경우에는 대체로 예술인패스의 할인 대상이 아니어서 정작 예술인들이 보고 싶어 하는 작품들은 예술인패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2022년 예술인패스 참여 기관의 비율을 보면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중 무료 입장이 가능한 기관의 비율이 전체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료 공연이나 전시를 할인해주는 기관은 33.1% 정도이다. 예술인패스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민간의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은 12.7%로 매우 적은 숫자였으며, 이마저도 서울을 제외하면 6.8%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국공립에 몰려있는 혜택들을 민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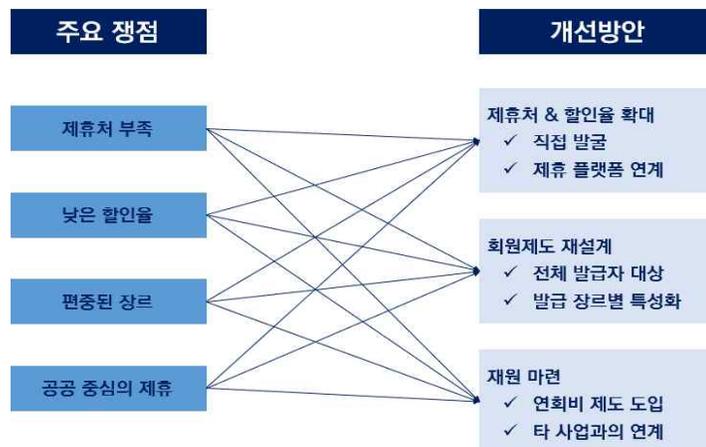


그림 4 | 예술인패스 제도의 주요 쟁점을 반영한 개선 방안

출처: 이정희(2022). 「예술인패스 활용 확대 방안 연구」, 87쪽.

## IV 예술인패스 제도의 개선방안

### 1. 제휴처 및 활용률 확대를 위한 제도 설계

#### (1) 제휴처 직접 발굴을 통한 활용처 확대

현재 예술인패스의 제휴처를 발굴하는 방식은 제휴처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패스 홈페이지에 직접 의향서를 제출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기관/사업장의 제휴처 승인이 완료되

면, 기관/사업장에서 예술인패스의 혜택으로 할인율이나 할인 내용을 등록하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패스 제휴처는 자발적으로 예술인패스 할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공립을 제외하고 민간에 예술인패스 제휴처로 유인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인패스가 실용성을 갖춘 할인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공립과 민간을 막론하고 예술인들에게 유용한 기관/단체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휴처 확대와 할인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적극적으로 제휴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현재의 조직구조와 예산으로는 직접 발굴의 형태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제휴처 직접 발굴을 위하여 조직의 규모를 늘리고 제휴처와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 (2) 제휴 플랫폼과의 연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직접 제휴처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의 제휴를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휴처를 확보하고 있는 제휴서비스 플랫폼과 예술인패스 제도를 연계하는 것이다. 일명 선택적 복지 제도(Cafeteria Plan)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제휴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서 예술인패스를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가장 필요한 사항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휴처들을 포섭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술인패스 제도와 제휴 플랫폼을 연계한다면 제휴 플랫폼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복지 서비스를 일부 변경하는 방식으로 예술인들에게 특화된 플랫폼 추가 설계가 가능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의를 토대로 예술인패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 2. 예술인패스 회원 제도의 다양화

### (1) 발급 대상 전체에게 동일한 혜택 제공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증명을 발급한 모든 예술인, 문화예술교육사, 박물관 및 미술관 관장·대표들에게 제공되는 카드로서, 예술활동증명자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예술 전 장르를 포괄하는 범용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술인

들에게 필수적인 것만 제공하거나 일부 장르에만 국한되는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은 예술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술인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문화예술 분야 제휴처가 어디인지, 생활 속 할인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술인패스가 전체 발급자를 대상으로 모두에게 유용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재설계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공통의 제휴처 발굴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조건과 연계되었을 때 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 (2) 발급 대상자별로 특성화된 혜택 제공

예술인패스 제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술인패스와 유사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 유사 기관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 동일한 직종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 장르를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예술인패스 발급자들은 활동하는 분야에 따라 필요로 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별로 특성화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보다 세밀한 제도 설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 개개인이 원하는 혜택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성화된 제도로 예술인패스를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3.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원 확보

### (1) 연회비 제도 도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멤버십 제도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즉 연회비 제도는 사용자들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인 셈인데, 예술인패스 제도에도 이러한 연회비 제도의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MdA(La Maison des Artistes)의 경우 매년 연회비 €30를 납부하면 협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멤버십 카드를 소지하는 것 자체로 입장료를 면제받거나 skip-the-line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각예술가들의 가입을 유인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토대로 예술인패스에도 일정 금액의 연회비를 책정하고, 납부하는 연회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예술인패스에 탑재한다면 예술인들의 가입과 활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 타 사업과 연계 고려

예술인패스 만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지원사업들, 예를 들어 창작준비금과 같은 제도와 연계하여 창작준비금을 수혜 받을 때 예술인패스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타 사업과 연계된다면 예술인패스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혜택을 탑재한 예술인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카드 발급과 유지비용을 매년 확보할 수 있다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타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타 사업과 연결함으로써 금융기관은 사업성을 확보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장기적 관점에서 예술인패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V 참고문헌

- 이정희(2022). 「예술인패스 활용 확대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2). 「예술인패스사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본고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수시과제 연구보고서 이정희(2022). 「예술인패스 활용 확대 방안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본지의 취지와 양식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2022). “예술인패스 활용 확대 방안 연구”.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문화동보기 제130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